

김승환 교육감 민선 3기 공약 '순항'

이달 말 현재 공약이행률 83.7%·26개 사업 이행 완료...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비전 완성해 나갈 것"

"부정부패 척결, 혁신교육, 공직자의 자존감 향상 등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민선 3기 3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사진)이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민선 3기를 돌아보며 "그 동안 저 자신이 꾸준히 성장을 해 왔다"며, 특히 혁신교육이나 공직자의 자존감 높이기 등을 언급하며 만족감도 드러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미진한 공약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 공약 이행률이 올 6월 말 기준 평균 83.7%로 집계됐다.

김승환은 지난 2018년 민선 3기를 출범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아 5대 분야 47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18개 사업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8개 사업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6개 사업 ▲정림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9개 사업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6개 사업 등이다

이중 6월 말 현재 이행완료 사업은

26개, 정상추진 사업은 20개, 일부추진 사업은 1개다.

먼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학생 분야 공약이행률은 85.0%로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8.2%p 상승했다.

이행완료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학교 실내체육시설 조성 확대,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등이다.

특히, 체계적인 해안안전교육과 실내 안전체험을 통해 해양사고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3월 개관하면서 임기내 이행을 완료했다.

학력신장 부문에서는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설립(100%)을 비롯해 교육과정 내 학생중심 예술활동 지원 (89.1%),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창조 공방 조성(99.0%) 등이 완료됐다.

다음으로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교사 분야 공약이행률은 85.1%로 집계됐다.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정책위의제,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정책총괄 부서 설치에 이미 달성했다.

또 교권 보호와 교원 치유지원, 교직원 관사 현대화 및 증축은 각각 84.2% 79.0%로 정상추진 중이다

세번째로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분야 평균 공약이행률은 79.3%다.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84.4%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70.5%,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89.7%, 교통소의 지역의 등하교 통학 버스(택시) 지원 확대 84.0%를 각각 기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초등학생 11만4000만원, 중학생 15만12000만원, 고등학생 23만18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도 지원해

오고 있다.

네번째로 정림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분야 9개 공약의 평균 이행률은 77.7%다.

시민감사관 운영 및 내실화 감사결과 현장 피드백 일반화로 사전 예방, 적극적 행정 면책 지속 운영 등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을 완료했고, 공립유치원 지속적 증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분야는 91.6%의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거버넌스 기구 운영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는 이행완료 사업이다.

한편 원도심학교 활성화 80.0%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민들기 88.5%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82.0% 등을 달성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은 지난 11년간 학교문화를 바꾸고 아이들의 행복과 참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교육가족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비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은성 기자

한국정보과학회 KCC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 최지원대학원생, 소프트웨어 결합 예측 관련 연구 논문

전북대학교 최지원 대학원생(소프트웨어 공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류덕산)이 최근 한국정보과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2021)에서 한국정보과학회 KCC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는 데이터 분포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버전의 딥 도메인 적용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포 차이는 줄이고 결합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다양한 소프트웨어 결합 예측 연구에 딥 도메인 적용 기법을 적용, 결합 예측력을 향상시켜 많은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원 대학원생은 "우수논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류덕산 지도교수님과 김순태 교수님, 이재욱 연구원 등 동료 연구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는 2020년 취업통계연보에서 취업률 81.0%를 기록하는 등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정은성 기자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지원 대학원생은 '교차 버전 결합 예측을 위한 적대적 학습기반 딥 도메인 적용 기법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지원 대학원생은 소프트웨어 결합 예측 도메인과 딥러닝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연구는 최 대학원생이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결합 예측 분야 중 교차 버전 결합 예측에서 발생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실외다목적구장 무료 전환

청소년여가와 체력증진기어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무료 이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그동안 유료로 운영돼 온 한바탕국민체육센터의 야외 다목적구장을 무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청소년과 인근 주민의 여가 활동과 체력증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바탕국민체육센터의 운영주체인 (사)전주공공스포츠클럽(회장 박종윤)과 협의를 통해 야외 다목적구장을 다음 달 1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다목적구장은 농구장 1면과 축구장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종목 간 거리두기로 인해 축구장 1면의 이용은 제한된다.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야간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이다. 관리사무실을

거쳐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마친 뒤 입장할 수 있다.

한편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평화동 1만2377㎡ 부지에 연면적 2994㎡,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으로 지난 2019년 11월 1일 문을 열었다. 실내체육관과 체력증진실, 체력단련실, 에어로비실, 주민문화공간(당구장, 탁구장) 등을 갖춘 실내 다목적체육시설과 실외 다목적구장을 갖추고 있다.

백순기 이사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자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주대-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 지원사업 프로그램인 '지역과 함께 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지난 29일 전북교육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약은 전주대와 전북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대학 간 연계 강좌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고교-대학연계 강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전북교육청과 전주대가 예산을 분담하고 전주대의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러 학과가 연계해 강좌를 구성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공론 활성화로 학교자치 역량 강화

지역별 초·중·고 학교장·교감 중 회담자 대상... 4일간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공론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초·중·고 학교장과 교감 중 회담자(지역별 20~30명)를 대상으로 학교자치 역량 강화 연수를 각각 4일 간 총 12시간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는 14~18일, 임실은 21~25일 운영됐으며, 장수와 고창은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교무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로 소통하는 참여적 교무회의의 모델을 구축하고, 학교 내 회의의 효율적인 개선 방법과 학교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공적 말하기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토론회로 소통하는 교

무회의 ▲퍼실리테이션 기반 토의식 회의 ▲리더의 소통하는 공적 말하기 ▲민원과 언론 등에 대한 학교의 공적 대응 등이다.

연수에 참여한 학교장과 교감은 "학교 업무와 연수를 병행하는 강행군의 일정이었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소통하며 결정을 실행하는 공론 활성화를 통해 학교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론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며 "학교에 공론이 활성화 돼 이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교풍토와 학교자치가 안정돼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건협 메디체크, 올해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메디체크가 지난 24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진행된 '2021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건강검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디체크는 고객의 건강상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체크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검진 및 증진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의미하는 건협의 브랜드다.

건협 메디체크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중점을 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활동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윤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